



조앤기 미시간대 미술사학과 부교수

Joan Kee Associate Professor, History of Art, University of Michigan

예일대 미술사 학부졸 마치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단색화 초기 작품을 재해석한 연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From All Sides: Tansaekhwa on Abstraction》(Blum&Poe 2014) 외 다수의 책과 논문을 썼다. 《Oxford Art Journal》 《Art History》 《Art Margins》 및 테이트미술관 전문위원이며, 아트포럼 객원편집자 등을 지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다시 미술사를 공부하며 단색화로 박사 논문을 썼다. 단색화를 연구한 계기가 무엇인가.

늘 미술사를 공부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 다른 직업도 탐구해보고 싶었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로펌에 취직해야 하는데 적성에 맞지 않았다. 연구는 항상 작품에서 출발하는데 단색화도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다. 대학 1학년 때 윤형근 작업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단색화를 잘 몰랐지만 관심은 있었다. 당시 미국 미술계, 학계에서는 아시아 현대미술을 잘 몰랐지만 학부 지도교수님이 유색인종 및 비서구권 모더니즘에 관심이 많았고 덕분에 나도 연구를 시작했다. 단색화는 대학원 때부터 연구했으며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특별히 끌리는 작품에 주목했다. 가능한 한 직접 본 작품에 대해서만 연구한다. 실제 본 작품과 책에서 본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단색화의 대표작은 경험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줬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미시간대 미술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교에서 맡은 수업을 소개해달라.

미시간대 미술사 수업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내가 맡은 교수직은 미국 내 처음으로 개설된 아시아 현대미술 전공 교수이다. 덕분에 다른 학교보다 아시아 현대미술과 관련해 세분화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근현대미술과 아시아미술을 주제로 한 과목을 가르친다. 미국 내에서 한국미술사 연구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본다. 10년 전만 해도 전공자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고미술뿐 아니라 현대미술 전공자가 많아졌다.

박사 논문을 출간한 책 《한국 현대미술- 단색화와 방법의 긴급성(Contemporary Korean Art-Tansaekhwa and the Urgency of Method)》(2013)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미국학계에서 권위 있는 ‘Charles Rufus Morey Award’ 최종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출판 이후 미국 학계 반응은 어떠한가?

아시아 현대미술을 주제로 수상후보 최종 명단에 오른 것은 내 책이 처음이었다. 이후 대학 출판사에서 한국 근현대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동양미술 전공이 아닌 현대미술사 학자들이 한국 현대미술을 수업 과정에 포함시켰다. 단색화가 현대미술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단색화가 열풍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

단색화는 회화이고 이미 잘 알려진 작품과 유사하면서도 차별화된 특징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현대미술사의 ‘아시아’란 틀에서도 비교적 낯선 지역이었다. 최근 단색화 시장이 소강상태인 것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단색화 관련 전시가 많이 열렸다. 이제 단색화 외 다른 작품(작가)을 조명해야 한국미술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다.

한국미술이 세계 미술계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한다면?

체계적인 미술사적 기반이 중요하다. 연구자의 판단도 필요하다. 방대한 자료를 연구한

전시보다는 확실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나라, 문화권의 미술과 연결되는 전시, 책, 학술 행사 등이 필요하다. 정보 제공보다 신중한 비평이 중요하다.

최근 주목하는 한국미술 장르나 작가가 있다면?

향후 출판 계획이 있으면 함께 소개해달라. 한국 동양화가 아직 현대미술로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것 같다. 최근 이유태의 작품 《탐구》(1944)를 주제로 학술지 《Modernism/Modernity》에 발표했다. 2019년에는 미술과 법을 주제로 한 책 《Models of Integrity: Art and Law in Post Sixties America》(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9)를 출간한다. 미국 현대미술가들이 다루는 법, 도구,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1960년대 이후 현대미술사는 법의 역사와 함께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또 미국 미술사학회 대표 학술지인 《Art Bulletin》에 한국 동양화 중에서도 추상화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화, 민속품이 전위 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쓰고 싶다. 현대미술 연구와 더불어 20세기 초상화와 20세기 초반 사진 작품, 미술과 음악의 관계에도 관심이 많다.

국내외에서 한국 현대미술을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작품의 의미를 탐구할 때 ‘어떻게’라는 질문을 갖고 작품을 오랜 시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작품 하나를 1시간 정도 보면 다른 세상을 접할 수 있다. 이를 ‘슬로 루킹’(Slow Looking)이라고 하는데 작품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경험을 제시하는지를 파악해야 미술의 생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폭 넓게 공부해야 한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북미, 유럽미술과 각 나라의 음악, 문학, 역사, 정치 등을 연구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 현대미술의 진정한 맥락을 분석할 수 있고 새로운 상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



2013년 5월 23일 《아트 바젤 홍콩》에서 아시아 미술 아카이브 토크 행사에 모데레이터로 참여한 조앤기 교수 (사진 오른쪽)